

삼성 올인원 세탁건조기 10만대 돌파...연내 프리미엄 출시

하루 평균 230대꼴 판매 글로벌시장 43개국 진출 북미 전용 벤트타입 출시

삼성전자가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출시 1년여 만에 국내 누적 판매량 10만대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신제품을 앞세워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프리미엄 라인업 ‘인피니트 AI 콤보’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2일 미디어브리핑을 갖고

올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도 벤트(Vent) 타입을 출시하는 등 히트펌프, 벤트 방식을 모두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일체형 세탁건조기 시장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월 비스포크 AI 콤보를 처음 출시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성능과 편의 기능을 강화한 2025년형 신제품을 선보였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출시 이후 하루 평균 230대 이상 판매되면서 이달 누적판매량 10만대를 넘어섰다.

신제품은 제품 외관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조 용량은 종전보다 3kg 늘려 국내 최대 수준인 18kg 건조 용량을 갖췄다. 세탁부터 건조까지 걸리는 시간(패속코스

기준)은 종전 99분에서 79분으로 20분 단축했다.

삼성전자는 건조 성능을 높이기 위해 열교환기 크기는 유지하면서 열교환기의 핀(fin)을 기존 대비 더 많이 촘촘하게 배치해 전열면적을 8.5% 확대했다.

성종훈 삼성전자 DA사업부 상무는 “전열면적이 넓어지면 세탁물을 통과한 고온 다습한 공기의 수분을 더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며 “건조해진 공기는 다시 드럼 안으로 들어가 세탁물의 수분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조 효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덕트 시스템도 적용했다. 의류를 통과한 공기가 제품 뒷면에 매립된 덕트를 통해

열교환기로 직접 연결돼 순환하며 건조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세탁물 1kg 당 소비전력량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최저 기준보다 45% 낮다. 건조시 소비전력량도 기존 콘덴싱 방식의 올인원 세탁건조기와 비교해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신제품은 세탁물의 무게와 옷감, 오염도 등을 AI가 감지해 최적의 세탁 코스로 맞춤 관리해준다. 세탁물의 무게, 표면 마찰 특성, 흡수 특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학습해 옷감 종류를 알아서 감지하고 구분한다. AI로 인식 가능한 옷감은 섬세·타월·일반·데님·아웃도어 등 5종이다. 제품 상단에 적용된 7형 ‘AI 홈’ 터치 스

크린에는 사용 빈도가 높은 6개 코스를 다 이일 형태로 보여주는 다이얼 테마, 스마트폰처럼 기기 설정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퀵 패널’ 기능이 추가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영국, 독일 등 30여개국에 비스포크 AI 콤보를 출시한 데 이어 올해는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으로 판매 지역을 확대, 총 43개국에 진출했다.

최근에는 미국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벤트 방식 건조를 적용한 ‘비스포크 AI 벤트 콤보’를 출시,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디자인을 보다 중시하는 국내 소비자를 위해 초프리미엄 라인업 ‘인

피니트 AI 콤보’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히트펌프 방식의 인피니트 AI 콤보는 정교하고 섬세한 ‘롱아트 헤어라인’ 공법과 빛의 반사를 최적화하는 광택감을 살린 디자인을 적용했다. 돌출면 없는 ‘리얼 플랫 디자인’으로 일체감 있는 인테리어를 구현할 수 있다.

인피니트 AI 콤보에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성 상무는 “히트펌프 방식뿐만 아니라 벤트 타입, 인피니트 라인까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며 “일체형 세탁건조기 리더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세탁기 시장의 변혁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신세계, 1인 가구 맞춤형 상품 ‘주목’

테팔 휴대용 믹서기 등 인기

㈜광주신세계가 1인 가구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겨냥한 맞춤형 상품으로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22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본관 8층 LG전자 매장에는 최근 스텐바이미를 문의하는 고객이 부쩍 늘었다. 지난 2월 출시된 스텐바이미는 내장 배터리로 무선 재생시간이 4시간이나 되고 무빙힐 스탠드를 이용, 사용자 환경에 맞춰 활용할 수 있어 고객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특히 여러 OTT서비스를 구동하는 2030세대 고객들이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다양한 자세로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된다.

광주신세계 LG전자는 스텐바이미2를 구독 서비스로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무상 AS를 1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스텐바이미2를 구독하는 고객들은 내장배터리를 1회 무료로 교체할 수 있다.

다리미와 믹서기 등 소형가전제품을 만드는 ‘테팔’에서도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제품들을 선보인다.

테팔 핸디형 스틱다리미 퓨어팝은 최근 2030세대 1인 고객들이 많이 찾는 품목이다. 테팔 핸디형 스틱다리미는



㈜광주신세계가 1인 가구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겨냥한 맞춤형 상품으로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세로형 스틱헤드와 5개의 스틱분사구를 갖춰 주름 제거 능력이 탁월하다. 30초만 예열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고온 스틱으로 주름 제거는 물론 위생적인 섬유관리도 가능하다.

본관 8층 테팔 매장에는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을 갖춘 테팔 핸디형 스틱다리미를 직접 경험해보고자 하는 2030 고객들의 발걸음이 계속 되고 있다.

테팔 휴대용 무선 믹서기 라이트 믹스

역시 1인 가구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

테팔 휴대용 믹서기는 외출이나 운동할 때 건강 음료를 챙기는 2030세대 고객들이 주로 찾는다. 믹서기에 딸기와 바나나, 우유 등을 넣고 40초만 작동시키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생과일주스를 신선하게 즐길 수 있다.

차량용 컴플러에 쏙 들어가는 슬림한 크기에 무게도 510g으로 휴대가 간편하다.

송대용 기자 sdw0918@

광주전남건단합-민주당 광주시장

구도심 개발 집중 등 주택시장 회복 방안 모색

광주·전남건설단체연합회(회장 박경재)는 22일 북구 주택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과 지역건설·주택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 건설·주택업계의 회복과 부동산 위기 등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상호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새정부의 지방건설 및 주택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도심활성화 방안(구도심 개발 집중)을 비롯해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 및 경제성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투자 확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제세지원, HF·HUG 보증제도 개선, 대형공사의 지역외부 공동도급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 방지법 개



광주·전남건설단체연합회는 22일 북구 주택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과 지역건설·주택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정안 조속 처리 등도 요청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은 “지역에서 건설과 주택산업은 지방경제의 핵심으로 건설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게 됐다”며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 등을 건의했다. 지역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개선에 집중하

겠다”고 말했다.

박경재 광주·전남건설단체연합회장은 “바쁜 선거일정 가운데도 지역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 준 양부남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방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송대용 기자

농협 광주본부, 제주서 ‘빛찬들 햇쌀’ 판촉

제주시농협과 직거래 등 지역 상생 모델 구축

농협 광주본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제주지역을 방문해 ‘빛찬들 햇쌀’ 홍보 및 판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 대표 쌀 브랜드인 ‘빛찬들 햇쌀’의 전국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농협 광주본부, 광주통합RPC, 지역농협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전국에서 쌀 유통 경쟁이 가장 치열한 제주도에서 광주 쌀의 우수성을 알

리고 판로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았다.

특히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중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주시농협과 상호협약을 통해 광주지역 주요 하나로마트에서는 제주 대표 농산물이 감귤 등 제철과일을 직거래로 입점·판매하고, 제주시농협에서는 ‘빛찬들 햇쌀’의 적극적인 판매를 추진하는 등 상생 협력의 성과를 거뒀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25년 1월 1일부터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전통급 확대!

✓선원을 고용하는 모든 어선은
2025. 1. 1.부터 어선원보험에 당연가입됩니다.

가입대상 어선이 어선원보험
✓가입신고 미이행시 징수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니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